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용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은 반드시 보인다. 마음속으로 결심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있는가.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당연히 마음이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도 존재영역이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논쟁에 속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인간의 모순이 속속 드러나면서 신의 존재조차도 단언하기 어려워졌다.

그동안 사람들은 신상(神像)을 대형화하고 숭배하면서 종교적 교의를 키워

우리가 상실한 것이 무엇 이길래 다시 연결해야 하는 것일까?

한자로 종(宗)은 갓머리 변에 보여줄 시(示)가 합한 말이다. 즉 머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으름이나 우두머리를 보여주는 것이 종교라면 아마도 절대존재나 절대가치 등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르쳐 다시 연결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종교들은 신의, 부처의, 기타 절대존재의 공극을 보여주려 노력도 하지 못한 외형적으로 양적 팽창에 주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목적과 가치, 방법론이 섞여 있는 것이다.

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은 질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서 무와 유를 결정지어왔다.

그러나 무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사실이 더 맞을 것이다. 처음부터 무가 존재하였다면 유와 무는 영원한 이원론적 개념이 될 것이다.

마치 선과 악이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 이원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은 선과 악의 치유 불가능의 갈등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전제와 같은 것과 같다.

지금까지 철학과 과학은 영원한 평행선을 그려왔으며, 하나는 이념이나 방법론으로, 다른 하나는 실증학문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철학적 논증과 과학적 실증을 거치지 않은 진리가 존재하는가?

인류의 달 탐험은 철학적 논리와 과학적 실증이 만들어 낸 위대한 가치이다. 상상력과 가설이 입증되면 과학적 방법론이 동원되듯 우리들의 삶도 생각을 실천시킬 힘이 필요한 것이다.

예술은 이러한 두 원인과 결과적 등가물이다. 위대한 예술, 예술가일수록 철학과 과학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상상은 이 두 가지의 유연한 결합에 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자 예술일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밝은 전등을 통하여 전기의 존재는 보인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 바람의 존재를 안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사랑을 느끼고, 그리움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빠삭 깊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은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으며, 박테리아도 몰랐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다고 말하던 인간의 태도는 상당한 수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러한 편견은 무지에서 온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과학의 공이 크다. 반대로 과학의 재앙도 엄청난 것처럼 말이다. 신, 또는 절대자의 존재는 보이지 않

았다.

부처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지는가 하면 십자가의 크기도 하늘을 찌른다. 이슬람이나 힌두교 사원의 크기, 교회의 크기, 사찰의 크기는 각 종교의 위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 간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종교라기보다는 각종 파들이 벌이는 키 재기이다. 종교와 종파의 차이는 엄청나다.

종교라는 religion은 re+ligion으로 “다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원가 끊어지고 상실한 것으로부터 다시 연결하고 되찾아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이 사는 주거양식이나 사무실, 기념비적 건축물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건축물들은 좋은 것,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이 마구 섞여 있다. 쓸모없거나 아름답지 못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눈에 난무하니 돌씩 칠거린다. 좋은 건축물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역사 속에 고스란히 보존된다.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인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의 예술품은 우리가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그들의 위대한 예술성이 스스로를 복원하고 보존

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은 질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서 무와 유를 결정지어왔다.

그러나 무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사실이 더 맞을 것이다. 처음부터 무가 존재하였다면 유와 무는 영원한 이원론적 개념이 될 것이다.

마치 선과 악이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 이원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은 선과 악의 치유 불가능의 갈등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전제와 같은 것과 같다.

지금까지 철학과 과학은 영원한 평행선을 그려왔으며, 하나는 이념이나 방법론으로, 다른 하나는 실증학문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철학적 논증과 과학적 실증을 거치지 않은 진리가 존재하는가?

인류의 달 탐험은 철학적 논리와 과학적 실증이 만들어 낸 위대한 가치이다. 상상력과 가설이 입증되면 과학적 방법론이 동원되듯 우리들의 삶도 생각을 실천시킬 힘이 필요한 것이다.

예술은 이러한 두 원인과 결과적 등가물이다. 위대한 예술, 예술가일수록 철학과 과학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상상은 이 두 가지의 유연한 결합에 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자 예술일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수관



치주염이나 심한 충치로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생각하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잇몸 뼈에 치아 뿌리의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기 때문에 잇몸 뼈가 충분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시술이 어렵다. 따라서 잇몸 뼈이식을 하고 몇 개월을 기다린 후, 임플란트를 심거나 식립 후에도 재차 뼈 이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몇 달 전 조선대 치과병원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내원한 정모씨는 잇몸 뼈가 부족해 골이식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치아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자가(본인)치아 뼈이식재는 자가골이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빠른 골흡수가 발생하지 않고, 뼈재취의 필요성이 없어 최근 이상적인 골이식재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15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고, 본인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환자에서 발치 된 치아를 가공해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하는 골이식재를 만들어 임상에 적용하는데 최초로 성공한

치아저축시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치아로도 골이식재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정씨는 며칠 뒤 딸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고, 정씨의 딸은 2개의 사본니를 뽑았다. 이렇게 발치 된 사랑니는 가공 처리 과정을 거쳐 골이식재로 만들어졌고, 정씨의 임플란트 수술시 잇몸 뼈가 부족한 주변 공간에 이식됐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정씨의 임플란트 시술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용하던 뼈이식 재료의 종류에는 자가골(자신의 뼈), 동종골(가공된 타인의 뼈), 이종골(가공된 소, 돼지의 뼈) 및 합성골이 있다. 이 중에 우수한 재료로 꼽히는 것이 자가골로, 이는 동종골이나 이종골보다 유전적·전염적 위험에서 안전하고 치유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가 치아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치아에 함유된 유기질인 클라겐을 보존시키기 때문에, 이식되는 잇몸 뼈와 동일한 골기질을 갖게 돼 다른 골이식재 보다 임플란트의 기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가골은 바로 이식한 자가골의 흡수가 다른 이식골에 비해 빠르고, 뼈를 채워하기 위해 턱이나 엉덩이 뼈 등 다른 부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바 있다.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2008년부터는 자녀의 치아를 부모의 임플란트 시술용 재료로 사용하거나 형제 등 가족 사이의 치아를 사용하는 ‘가족치아 이식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이미 국내에서만 1만여 건이 시행됐다.

가족치아 이식술의 보편화와 전문화를 위해 조선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가족치아빠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치아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이용이 가능해진 만큼 이전 발치한 치아를 땅에 묻거나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교정을 목적으로 뽑은 치아나 유치, 사랑니 등 가족치아빠은행에 보관하면 필요시 골이식재로 만들어 임플란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대 치과병원은 가족치아 뼈이식 환자에 한해서 검사비와 치아 가공 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본인 치아는 물론 가족의 치아를 잘 보관하는 것이 미래에 자신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됐다.

〈조선대치의학전문대학원장〉

기고

최재평



피서철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말하는 안전사고를 접하다 보면 조금만 더 주의했다더라, 한번 더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양경찰에서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사고 ZERO화를 목표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안전관리 요원 배치 운용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훈련 및 122구조대 배치 등 적극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목포 관내 15개 해수욕장 안전관리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61

서는 첫째,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음주 후에는 바다 레저활동을 삼가야 한다.

둘째,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거나 안전선 밖 무모한 수영, 장시간 또는 혼란된 수영은 피해야 한다.

셋째,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남해안은 이안류 발생이 잦고, 또 동해안의 큰 파도 등 바다환경을 미리 숙지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넷째, 각종 레저활동시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장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한 자세

건으로 이때 발생한 1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해양경찰에 구조되었다.

현재까지 전국의 해수욕장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수영 미숙 155명, 음주 수영 26명, 부주의 803명, 기상악화 25명, 기타 원인 195명으로 이 중에 눈에 띄어 봐야 할 것은 사전에 안전의식을 갖고 행동하였거나, 조류·조석 및 이안류 등 바다환경을 미리 알아두려만 방지할 수 있었던 부주의 원인이 67%라는 것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발생했던 압해도 낚시꾼 제모씨 실종사고나 흥도에서 스낵스쿠버 체험에 나섰던 이모씨 의식불명은 바다가 낭만의 장소만이 아니라, 주의와 안전의식이 필요한 위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자체 및 관련 단체들의 참여 및 협조가 필수적인 관건이라 하겠다.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여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익수자나 조난자를 발견 시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구조·응급처리하거나 안전관리요원 및 122구조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주고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소중한 바다가 원망의 바다가 되지 않도록 위 사항을 포함한 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 해양경찰은 바다를 찾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 바다를 즐기고도록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바다 지킴이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여름휴가도 피서객과 관계자의 협조, 해양경찰의 안전관리와 바다 생명번호 122가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여름 피서가 되기를 소망한다.

〈목포해양경찰서장〉

즐음 쫓으려 마시는 드링크제 과다복용엔 해롭다

알마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를 만나러 학원에 갔었다.

그런데 이 수험생들 중에 드링크제를 복용하는 학원생들이 아주 많은 걸 알 수 있다. 보통 책상마다 드링크제가 눈에 띄고 쓰레기통이나 복도, 창틀 밑 곳곳에 드링크제 빈병이 나뒹굴고 있다.

수험생들은 특히 시험기간이 임박해서 잠을 쫓으려고 드링크제를 더 많이 마신다고 한다.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을 수 있지만 불안, 초조해지고 또한 심장박동수가 증가되고 위산분비도 증가되어서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위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친구에게 이런 위험성을 말해줬더니 알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시험 앞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한다는 말을 했다. 그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시험 전에는 각성효과가 있는 드링크류에 의존하다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시설

DJ 1주기, 민주·평화·통합정신 계승해야

민주화와 남북 화해 시대를 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다진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지난해 서거 당시 국민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온 사회 운동가였다. 또한 한반도 냉전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평화주의자의 동시에도 부도 위기에 처한 국가를 건진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가슴 속에 시킬 힘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게 최근 우리의 현실이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돼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고인이

평생토록 일궈온 햇볕정책이 퇴색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고인을 많은 국민이 그리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의 가치와 이념은 계승 발전돼야 한다. 고인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민주주의 완성, 복지국가 구축, 남북한 평화 공존과 번영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인이 추구했던 인권·평화·복지·양성평등·사회통합은 과거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인 것이다.

정치권은 고인의 가치와 정치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갈수록 심화돼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고인이

광주·전남 재래시장 ‘가스화재’ 무방비라니

광주·전남지역 재래시장 점포의 70% 이상이 가스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화재의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1269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재래시장의 77.8%가, 전남은 74.2%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북구 말바우시장 등 9개 시장 가운데 7개 시장 234개 점포가 최하위인 E등급을, 전남지역 역시 고흥시장 등 전체 31개 시장 가운데 23개 시장 650개 점포가 E등급을 받아 안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등급은 가스화재 폭발 등이 우려되는 최고 위험 등급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전남 재래시장 10곳 중 7~8곳이 가스 폭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재래시장의 가스시설과 배관 관리는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스통을 별도의 안전시설 없이 임

의로 두고 사용하는데다 배관들이 서로 뒤엉켜 폭발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재래시장은 특히 점포가 밀집돼 있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거 부산 국제시장의 대형화재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스안전공사가 올해 전국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403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중기청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말만이 막힌다. 여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예산 가운데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17억여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떠드는 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방치한다면 ‘예고된 인재’나 다를까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無等鼓

광주시가 전통시장에 보급한 ‘쇼핑카트(Shopping cart)’가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양동·남광주·대인·말바우 시장 등 4곳에 40대씩 모두 160대의 쇼핑카트를 보급했는데, 하루 이용자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로가 좁고 지면도 울퉁불퉁한데다,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고 생각했고, 여자들은 유모차 같아서 모양새가 빠진다고 여겼다.

골드만이 피를 냈다. 건장한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들을 고용해 고객인 적 쇼핑카트를 밀고 매장 이곳저곳을 다니도록 보급했는데, 하루 이용자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로가 좁고 지면도 울퉁불퉁한데다,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보기 수레



예견된 일이다. 쇼핑카트는 본래 서양에서 대형 할인점용으로 설계된 물건이었다. 1937년 미국 오프라호머시터 ‘헵프터트럼 프리 슈퍼마켓 체인’ 소유주인 실만 골드만이 도입한 것이 시초다. 그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줄 서 있는 고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접이식 금속 의자에 바퀴를 단 형태의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았다. 접이식 의자가 있어 디자인을 보완해봤지만, 고객들은 카트를 밀고 장보는 것을 어색해 했다. 남자들은 공처가처럼 보인

게 늘었다. 골드만은 백만장자가 됐다. 오늘날엔 쇼핑카트가 없는 할인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쾌적한 쇼핑선과 넓은 주차장을 갖춰 카트 이용에 안성맞춤이다.

전통시장은 다르다. 대부분 고가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앞에 줄 서 있는 고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접이식 금속 의자에 바퀴를 단 형태의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았다. 접이식 의자가 있어 디자인을 보완해봤지만, 고객들은 카트를 밀고 장보는 것을 어색해 했다. 남자들은 공처가처럼 보인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iwnew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